사 설

'선우논강 재개'를 환영

2일 남원 실상사에서 재개된 선우논강이 교계 안팎의 시선을 끌었다. 60여명의 승려들이 모여 한국불교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물론 비판은 건전한 불교문화를 건설하는 밑거름이다. 건전한 비판문화가 정립될 때 그 집단은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때문에 어느 집단이나 그 집단의 발전을 위해 칭찬과 비판이 상존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선우논강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불교 현실에서 이들의 비판은 오랜 가뭄 뒤에 내린 가랑비이기 때문이다. 가랑비에 가뭄이 해갈되지는 안겠지만 희망과 용기를 지닐 수 있기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한국불교의 장자 종단인 조계종은 그들이 추구하는 선적 깨달음의 세계가 지나치게 신비화 내지 관념화 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 오래다. 부처는 있으되 중생은 없으며, 불법은 있으되 그 가르침의 실천자는 없다는 것이다.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문화와 역사를 팔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도 있다. "조계종은 '사기 집단'이다"라거나 "화두 들고 선방에 앉아 있는 것이 선인가?"하는 각화사 선원장 고우스님의 사자후는 뼈저린 자기반성에서 터져 나왔기에 새벽 종성처럼 다가오고 있다.

애정이 없으면 비판도 나올수 없다. 우리는 선우논강과 같은 모임이 더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길 고대한다. 그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새 살을 돋우기 위한 아픔으로 드러나야 한다. 종단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인간문제 나아가 일체의 생명체에 관한 존엄성을 깊숙하게 탐색하여 진정한 승가의 모습을 회복하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13대 중앙종회에 바란다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가 9일 원구성과 함께 제155회 정기중앙종회를 개회하며 4년간의 장도에 들어섰다.

출발선을 막 지난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를 향해 우리는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종회 내에 구성된 계파의 문제다. 이미 12대에서 고착된 계파는 4개. 13대에서도 그 이름을 바꾸거나 구성원을 달리해 이들 계파는 여전히 구성되었고 거기에 한 두 개의 계파가 더 생겼다는 소식이다. 8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중앙종회에 5개 이상의 계파가 형성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보다 나은 종책 개발과 보다 발전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만들어진 계파라면 그 취지에 충실해 종단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활동해야 한다.

다음은 종단 바깥으로도 시선을 던져 달라는 것이다. 중앙종회는 종단의 대의기구인 만큼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불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거시적이고 대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세속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아니라 불교의 현대화와 세계화라는 화두도 챙겨 들고 폭넓은 활동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지난 제12대 중앙종회는 종단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제 제13대는 그 안정의 힘을 이어받아 명실상부하게 도약하는 종단의 견인차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4년 후, 종정 법전스님이 개원법어를 통해 던진 질문에 부끄럽지 않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들어오기는 왔으나 어떻게 나가 사부대중이 베풀어 준 은혜를 갚겠습니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l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기본교육 실시 아직은 30% 불과

조계종 조사 사찰 1,439곳 중 473곳만 시행

지역별·연합교육·편차해소 방안 필요

포교원 "명확한 종책세워 미비점 보완"

신도교육체계 확립을 위해 조계종이 의무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사찰이 조사사찰의 30% 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체계적인 신도교육종책 수립이 요망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9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전화로 실시한 신도기본교육 실시현황 조사 결과, 응답한 1,439개 사찰 중 473곳(32.9%)만이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응답하지 않은 1,250개 사찰중 통화가 되지 않은 곳(613곳), 결번(424곳), 조사 불응(117곳) 등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실시율은 30%도 안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966개 사찰 중 향후 교육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한 사찰은 68곳. 369개 사찰은 계획이 없다. 529곳은 응답을 회피했다. 이는 "점차 기본교육을 확산,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포교원 방침과 대치되는 결과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137, 영남 178개 사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호남, 제주, 강원지역은 각각 58, 12, 15곳에서만 실시해 낮은 실시율을 보였다.

조계종 포교원이 기본교육 교재로 지정한 〈불교입문〉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209곳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44개 사찰은 교재 없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중교재와 임의교재를 사용하는 사찰도 각각 83곳, 137곳에 달했다.

이번 결과는 당초 포교원이 신도기본교육 시행 1주년을 맞아 설정한 목표였던 200개 사찰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그러나 조계종 전체 사찰이 2600여개인 점을 감안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조사 형태에 있어서도 이번 조사는 전화로 이뤄져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

따라서 신도기본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체 교육이 어려운 사찰들을 지역별로 연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포교원 심의로 사찰 자체교재의 적합 여부를 검증해 다양한 교재가 활동되도록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또 균형 있는 신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 박용규 신도과장은 "11월말까지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해 향후 기본교육의 명확한 종책을 설정하고, 미비점 등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태고종은 순천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제26회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실시해 모두 164명의 새 스님을 배출했다.

태고종 26회 합동득도수계산림 회향

사미 124, 사미니 40명 배출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2일 순천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제26회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회향하고, 사미 124명 사미니 40명 등 모두 164명의 새 스님을 배출했다.

원로의장 일우스님을 교수사로, 사정원장 법장스님을 갈마사로, 총무원장 운산스님을 전계사로 실시된 수계식은 10월 7일 입재, 매일 1천배 정진, 1보1배, 기초습의, 예경의식 등 4주간의 엄격한 교육과 득도고시를 통과한 행자에게 자격을 부여했다.

운산 총무원장은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청정히 하여 중생제도와 전법도생의 책임을 다하는 수행자로 정진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순천 선암사=박봉영 기자

진각종 대표단 북한방문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7일 진산 종의회 의장, 혜인 총무부장, 무외 문화사회부장, 지현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선상신 BBS 정치부장 등 5명의 대표단을 구성, 19~23일 북한을 방문해 남북불교 교류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이번 방북에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측과 만나 복지시설 건립 지원 등의 교류협력 사업을 협의하고, 광법사 또는 보현사에서 통일기원남북합동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총무부장 선용·기획실장 도현스님

조계종, 5개부처 부·국장 인사

◇총무부장 선용

◇기획실장 도현

◇재무부장 범여

◇문화부장 설응

◇호법부장 진욱

◇포교부장 일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6일 총무원 총무부장에 선용스님을 임명하는 등 5개 부처 부 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선용스님은 도원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1대 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조계종 초심 호계위원을 맡고 있다. 기획실장에는 前 교육부장 도현스님이, 재무부장에는 사서실장 범여스님이 전보 발령됐다. 또 문화부장에는 낙산사 주지 설응스님이, 호법부장에는 법계사 주지 진욱스님이 발탁됐다.

사서실장에는 전 사서차장인 경우스님이 직무대리로, 문화국장에는 성효스님, 호법부 조사국장에는 심우스님이 각각 임명됐으며, 호법국장에는 자공스님이 전보 발령됐다.

또 포교부장에는 일관스님(불암사 주지), 포교연구실장에는 진명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한명우 기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통과

공소시효 조항은 삭제

앞으로는 도난 문화재를 은닉하거나 보관한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도난문화재를 불법 취득하여 은닉·보관한 경우 훔친 사람이 처벌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81·82조 4항 신설)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은닉·보관 행위가 발견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토록 하는 조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난 도난 문화재를 은닉 보관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권형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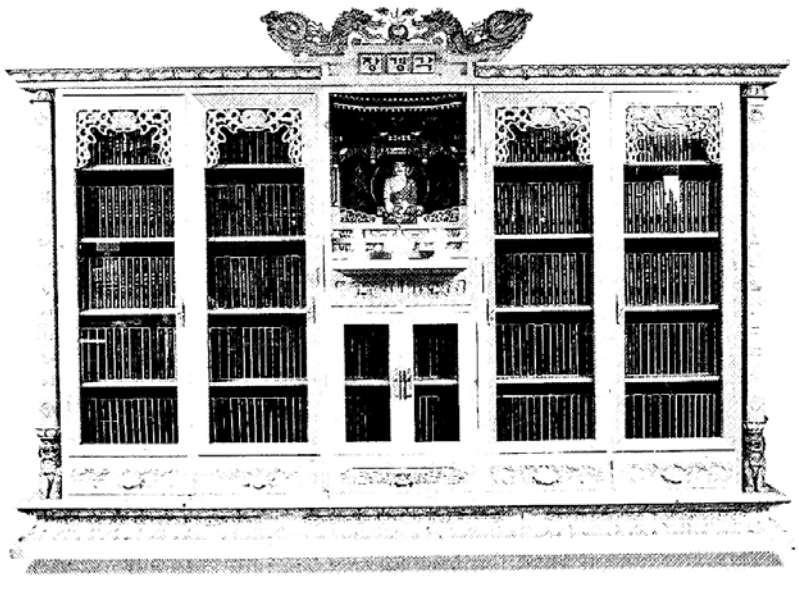
'현대' 만평 김 영 민

신도교육, 제대로 합시다!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聖寶
가정에 봉안하면 家寶
읽고 마음 밝히면 法寶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부다피아카드로 봉인불사를..

현대불교신문사와 외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아 외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아외환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1질 (4백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